

기록과 사람(人); 기록을 남긴 사람들

／ 임진왜란과 조선의 서적

강명관 •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옛 기록의 행간(行間); 고문서 속의 옛 이야기

／ 친딸보다도 4촌 종손(從孫)이 더 가까운 세상(Ⅱ)

김도형 • 전북대학교박물관 학예사

PROJECTED SERIES

임진왜란과 조선의 서적

글. 강명관 (부산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1. 임진왜란과 국가 장서의 소멸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조선을 건국한 1392년으로부터 꼭 2백 년만이었다. 그 동안 삼포왜란(三浦倭亂)과 같은 자잘한 싸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조선은 그래도 유례없이 2백 년 동안 장구한 평화를 누렸다. 하지만 이 장구한 평화도 풍신수길의 일으킨 전면전쟁으로 하루아침에 끝이 났다.

조선은 전쟁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고, 국왕 선조는 1592년 4월 30일 황급하게 서울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다. 이 때 경복궁이 불탔고 조선의 책들이 사라졌다. 그 광경을 『선조실록』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이 『승정원일기』: 조선시대 왕의 비서 기관인 승정원에서 왕명의 출납·사무·의례 등을 기록한 일기다. 조선 건국 초기부터 기록되었으나 임진왜란 때 소실되어, 현재는 1623년(인조 10)부터 1910년(융희 3)까지의 288년 간의 기록만이 남아 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도성의 궁궐과 관청이 불탔다. 거가가 출발할 즈음에 도성의 간악한 백성들이 먼저 내탕고(內帑庫)에 들어가 보물을 다투어 가져갔다. 조금 있다가 거가가 출발하자 난민이 크게 일어나 먼저 장례원(掌隸院)과 형조에 불을 질렀다. 두 관서에 공사노비(公私奴婢)의 문서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어 궁궐과 관서의 창고를 털고, 불을 질러 흔적을 없앴. 경복궁·창덕궁·창경궁 세 궁궐이 한꺼번에 타버렸다. 창경궁은 바로 순회 세자빈(順懷世子嬪)의 찬궁(橫宮)이 있는 곳이었다. 역대 의보완(寶玩)과 응문루와 응무루, 홍문관이 소장하고 있던 서적, 춘추관의 각 조(朝)의 실록(實錄), 다른 창고에 소장된 전조(前朝)의 사초(史草)『고려사』를 수찬할 때의 초고다—원주], 『승정원일기』가 모두 강그리 타버렸다.

안팎의 창고와 각 관서에서 소장하고 있던 것도 모두 도둑을 맞거나 타버렸다. 임해군의 집과 병조 판서 홍여순(洪汝諄)의 집도 불탔는데, 두 집안은 평상시 재산을 많이 모았다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유도대장(留都大將)이 몇 사람의 목을 베어 사람들에게 본을 보였지만, 난민이 때를 지어 몰려들어 금지할 수가 없었다(『선조수정실록』 25년 4월 14일).

그 동안 억눌려 살았던 노비와 자신들을 버린 왕이 미웠던 백성들이 궁중으로 난입해 노비문서를 태우고, 재물을 약탈했던 것이다. 그리고 불을 질렀다. 이 불로 장서가로 유명했던 유희춘(柳希春, 1513–1577)이 전쟁 전에 “책의 바다”라고 경탄했던 홍문관의 거대한 장서가 재가 되어 사라졌다. 응문루·응무루의 장서도, 성균관의 존경각의 방대한 규모의 서적도 한 줌의 재가 되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일은 『고려사』를 쓸 때 사용했던 고려 이래의 자료와 『승정원일기』가 재가 된 것이다. 『고려사』 이외의 고려시대 관계 자료를 볼 수 없는 것도, 『승정원일기』가 반쪽이 되어 남은 것도 이 때문이다. 임진왜란 이전의 문헌이 극히 희귀한 것도 임진왜란 때문이다. 이 비극적 상황에 대해 『선조실록』(27년 10월 15일)은 “국가가 불행하여 왜적의 분탕질을 당한 나머지 공가(公家)의 문부(文簿)가 하나도 남아 있는 것이 없다”라는 말로 요약했다.

서울의 서적만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당시까지 지방에서 책을 찍어내었던 책판(冊板)도 모두 재가 되었다. 『고사촬요』에 의하면 1585년(선조 18)까지 지방 각 관청에서 소유하고 있던 책판은 모두 986종이었는데, 전쟁 이후 남은 것이 없었다. 민간의 장서 역시 기록에 남아 있지 않다 뿐이지, 동일한 비극을 맞이했다. 왜군은 조선의 문헌을 조직적으로 약탈했다. 왜군이 지나간 곳이나, 왜군의 점령지에 문헌이 온전히 남을 리 없었다. 조선 건국 이래 나라와 민간에서 축적했던 서적은 임진왜란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우리는 그때 무엇이 얼마나 없어졌는지도 모르고 있다.

2. 서적의 보존 노력

전쟁 중에도 서적 보존에 관한 노력은 당연히 있었다. 전쟁이 난 그 해 11월 11일 선조는 서적을 보존하기 위한 조치를 내린다. 충청도·전라도 등 온전한 지방과 경상도의 온전한 고을에는 『실록』·『동국사(東國史)』·『동문선(東文選)』 등과 기타 조선의 서적이 약간 남아 있었다. 그것들을 깊은 산중이나 아주 떨어진 섬 같은 곳에 나누어 보관하고, 뜻밖의 변을 대비하도록 다방면으로 지휘하라는 것이 선조의 명령이었다. 이 명령은 즉시 각도에 공문으로 발송되었다. 신하들은 이 명령에 공감했고, 서적의 보존을 위해 노력했다. 가장 중요한 책은 당연히 『실록』이었다.

『실록』은 원래 서울의 춘추관·성주(星州)·충주(忠州)·전주(全州) 4곳의 사고(史庫)에 봉안되었으나, 1593년(선조 26) 5월 5일 현재 전주사고의 것만 온전한 상태로 있었다. 이것은 같은 해 7월에 황해도 해주로 옮겨졌다. 이 때 아직 서울은 수복되지 않았다. 10월 1일 선조는 서울로 돌아왔고, 이후 복잡한 논의과정을 『실록』을 다시 인쇄하자고 결정했다. 1606년(선조 39) 4월 28일 4벌을 더 인쇄하여 원본과 함께 모두 5벌의 『실록』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서울의 춘추관·강화도·묘향산·태백산·오대산에 사고를 지어 보관하였다. 물론 이것은 전쟁이 끝난 뒤의 이야기다.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선조는 영변의 묘향산에 옮겨둘 것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선조실록』 29년 11월 7일).

반드시 묘향산에 옮겨두고 사관에게 맡아 지키게 하거나, 아니면 별관(別官)을 따로 정해야겠다.

『실록』을 나누어 보관한 사고에는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관계된 서적도 보관해 두고 있었다. 전주사고가 무사하였으므로 그 서적들 역시 병화를 피할 수 있었다. 예컨대 1603년(선조 36) 8월 3일 선조는 강화도사고에서 『병장설(兵將說)』·『역학계몽(易學啓蒙)』·『초학자회(初學字會)』·『진법(陣法)』·『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역대병요(歷代兵要)』·『동국통감(東國通鑑)』·『동문선(東文選)』 등을 가져오게 했는데, 이 책들은 원래 전주사고에 있던 것들이었다.

서적을 보존하는 노력과 함께 서적을 복구하는 노력도 기울여졌다. 먼저 민간에 남아 있는 서적을 수집할 필요가 있었다. 명군의 참전과 남하로 의주로 옮겨진 조정이 서울로 돌아갈 것이 확실시되자, 비변사에서는 서울을 수복하게 되면 먼저 민심을 수습할 교서를 내릴 것을 선조에게 요청하는데, 거기에는 뜻밖에도 서적에 관한 조항도 있었다. 즉 “선왕(先王)과 선성(先聖)의 묘(廟)·전(殿)의 제기(祭器)와 공적, 사적으로 간직한 그림과 서책 및 여타의 잃어버린 물건을 백성들이 자진해서 바치도록 방문(榜文)을 내걸자는 것”(『선조실록』 26년 1월 27일)이었다. 물론 본격적인 서적의 수집은 전쟁이 끝나고부터 시작되었다. 1599년(선조 32) 8월 11일 선조는 비망기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문헌의 나라인데 불행하게도 흉적의 침략을 받아 서울과 외방의 서적이 강그리 망실되어 남은 것이 없다. 전에 글을 내려 책을 구하게 했는데도 널리 찾아 올려 보내지 않으니, 지극히 온당치 않다. 선비와 백성들의 집에 어찌 볼 만한 책이 간직되어 있지 않단 말인가? 경은 다시 여러 방법으로 책을 널리 찾되, 그 중 우리나라에 관계되는 서적은 더욱 힘써 구하라. 서법(書法) 등의 서책도 같이 찾아 올려 보내라. 책을 바친 사람은 상을 주겠다고 각 도에 하유하라.



02 오대산사고: 김홍도가 그린 「금강사군첩(金剛四郡帖)」의 한 폭에 그려진 오대산사고. 임진왜란 이후 『실록』을 산간지역에 분산 보관하기 위해 여러 벌의 『실록』을 편찬했고, 그 중 교정본 1벌은 미완성의 상태로 오대산사고에 보관했다. 사진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간행한 『조선고적도보(朝鮮古蹟圖譜)』에 남아 있는 오대산사고 전경과 선원보각 모습



03 오대산사고 전경



04 오대산사고 선원보각

이처럼 상을 주면서까지 서적을 수집하는 한편 중국으로부터 서적을 구입하기 시작했다. 물론 국가의 자금으로 대량 구입한 것은 아니고, 개인이 구입한 것을 국가에서 수납하는 것이었다.

1600년(선조 33년) 6월 7일 이호민(李好閔)은 경연에서 강하는 서적이 왜적의 손을 거친 뒤라 완질이 아니어서 임금이 보기에 합당치 않았다면, 자신이 중국에 사신으로 갔을 때 구입한 책을 바쳤다. 『시경』·『서경』·『주역』·『예기』·『논어』·『맹자』·『중용』·『대학』·『중용혹문(中庸或問)』·『대학혹문(大學或問)』·『군신도감』 등 절대 다수가 경서였다. 이것은 전쟁 전에는 그야말로 흔한 책이었다. 하지만 이런 책조차 제대로 남아 있지 않았고, 임금이 보는 책마저 온전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호민의 경우는 한 예일 뿐이다. 중국에 파견되는 사신은 적극적으로 서적을 수입했으며, 그것은 개인의 독서물이 되었던 것은 물론이고 때로는 국가의 장서고(藏書庫)를 채우기도 하였다.

3. 다시 서적을 간행하다

민간의 서적을 수집하는 것, 중국에서 서적을 수입하는 것으로 서적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서적을 다시 인쇄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었다. 1601년(선조 34년) 1월 24일 사헌부에서는 서적의 발행을 촉구하는 글을 선조에게 올린다.

병화 끝에 서적이 강그리 없어진 탓에 선비들이 배우지를 못한 나머지 무식하여 처신할 방도를 당치 모릅니다. 참으로 한심한 지경입니다. 지금 백성의 힘이 소진되었고, 국가가 바닥나서 경전과 사서(史書)를 널리 찍어 서울과 외방에 반포하는 것은 형편상 어렵습니다. 그중 책수가 많지 않고, 마련해 갖추기 쉬운 책으로 『소학』 『대학』보다 더 긴요한 것이 없습니다. 담당 관청에서 남아 있는 활자로 적당한 양만큼 인쇄해 내어 팔도에 널리 반포해 몽학(蒙學)들이 성취하는 바가 있게 하여, 풍화(風化)의 근본이 되게 하소서.



05 『세종실록』 정족산본(왼쪽)과 태백산본(오른쪽): 『실록』은 조선을 연구하는 데 있어 결정적으로 중요한 자료다. 현재 정족산본은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태백산본은 국가기록원 부산기록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이 기사에 따르면 그야말로 초학자들이 배우는 『소학』·『대학』 등의 ‘교과서’조차 부족하였던 것이다. 당연히 이런 책부터 인쇄하기 시작했다.

3년 뒤인 1604년(선조 37) 12월 2일 성균관에서 예조에 보낸 첩정(牒呈)에 따르면 성균관은 존경각의 서적이 소실되어 성균관의 교육 자체가 불가능한 실정이라면서 새로 간행되는 서적을 공급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가 하면, 『시경』의 경우는 민간에 전혀 남아 있는 것이 없어서 회강(會講)때에도 선비들이 한 권씩 빌려 읽는 형편이었다는 것이다. 성균관이 서적을 요구하는 데는 근거가 있었다. 이 첩정에 의하면 당시 충청도에서는 사서(四書)와 『시경』·『가례(家禮)』를, 전라도에서는 사서와 『주역』·『계몽(啓蒙)』·『십구사략(十九史略)』을, 경상도에서 사서삼경 『통감』·『가례』·『심경(心經)』 등을 새로 간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들은 모두 전쟁 전에는 가장 수요가 많은 책이었다. 전쟁 뒤에도 당연히 이런 수요가 많은, 기본적인 서적부터 다시 간행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성균관은 이런 서적들을 두세 질씩 주도록 요청했던 것이다. 성균관에서는 1년 뒤인 38년 3월 18일에도 관학 노비(館學奴婢)의 신공(身貢)을 낭비하지 말고 모두 거두어 들여 서적의 구입과 인쇄에 충당할 것을 요청하여 허락을 받고 있다. 이와 아울러 1601년에는 『춘추』가 인쇄되었으며, 전란 전에 번역 교감되었던 『시경언해』·『주역언해』·『서경언해』는 『시경언해』의 일부를 제외하고 원고를 망실했던 바, 다시 번역 교감을 거쳐 인쇄가 추진되었다. 『효경대의』는 1604년에 평안도에서 목활자로 인출되었다.

경전 외에 문학서 역시 다수 간행되었다. 『문장종범(文章宗範)』과 『해동시부선(海東詩賦選)』 같은 책은 문학 수련의 교과서로 간행된 것이었다. 그 외에도 실생활과 국가경영에 필요한 기술서적들이 간행되었다. 예컨대 1606년(선조 39) 5월 14일 내의원에서는 의서의 인출을 건의하고 있다. 또 1607년(선조 40년) 4월 3일에 선조는 『무경칠서(武經七書)』를 빠진 부분을 채워 을해자와 경진자로 속히 출간하여 2, 3권을 궁내로 들이고, 1권을 전라도에서 3백 권을 인쇄 제본하여 올릴 것을 명령하였다. 왕명이었으니 당연히 이 책들은 인쇄되었다.

이런 서적들은 금속활자가 대부분 망실되었기 때문에 목활자나 목판본으로 인쇄되었다. 또 교서관의 기능이 완전히 복구되지 않았기 때문에 훈련도감(訓練都監)에서 인쇄를 맡기도 하였다. 훈련도감은 왜군을 격파하기 위해 특별히 만든 군영인데, 그 유지비가 부족했기에 따로 서적을 인쇄하여 팔기도 했던 것이다. 훈련도감에서는 특별히 목활자를 제작해 책을 인쇄했으며, 이후 약 50년 동안 책을 제작하였다.

4. 전쟁이 끼친 영향

임진왜란으로 인해 2백 년에 걸쳐 쌓아올린 서적문화가 망실되었다. 우리는 이로 인해 조선 전기까지 전해져 오던 거의 모든 책을 상실하였다. 고려의 『실록』은 물론이고, 그때까지 전해져 왔을 고려 이전의 서적들도 영원히 볼 수가 없게 된 것이었다. 금속활자도 대부분 망실되었다. 전쟁 직후 서적인쇄의 하드웨어를 복구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금속활자가 없어서 목활자로 책을 인쇄하였고, 부족하지 않게 다시 금속활자를 온전히 갖춘 것은 숙종대였다. 지방의 목판인쇄도 더디게 복구되었다. 이 역시 숙종조에 와서야 기본적인 책판(冊板)을 구비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나마 제법 빠른 속도로 복구가 가능했던 것은 조선이 사족체제(士族體制)라는 것, 곧 지식인(士族)이 사회의 지배층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사족은 지식을 보유함으로써 지배층이 되었으니, 그들에게 서적은 필수적인 것이었다. 이 때문에 목활자를 사용해서라도 빨리 서적문화를 복구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지금 전해지는 대부분의 책은 전후 빠른 속도로 서적을 복구하고자 했던 사족들의 의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나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 이야기를 약간 덧붙이고 이야기를 맺을까 한다. 일본에는 현재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한국 서적이 있다.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때 약탈한 것이 대부분이다. 임진왜란 때 약탈한 서적 중 상당수는 전쟁 이후 일본에서 간행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속활자의 약탈이었다. 알다시피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까지 일본에는 금속활자가 없었다. 풍신수길은 엄청난 약탈품 중 금속활자를 가장 진귀한 것으로 여겨 일본 조정 에 헌상했다고 하는데, 이것으로 전쟁 이듬해인 1593년에 『고문효경(古文孝經)』을 인쇄했다. 활자는 아마 갑인자나 을해자로 추정된다. 일본은 1597년에 다시 목활자를 만들어 『권학문(勸學文)』과 『금수단(錦繡段)』 등 10여 종의 활자본을 천황의 명으로 만든 칙판(勅版)으로 간행하는데, 『권학문』 발문에 “이 법은 조선에서 온 것인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다”라 적고 있으니, 약탈해 간 금속활자를 실마리 삼아 비로소 활자 인쇄법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 목활자를 조성해 다수의 서적을 인쇄하는데, 대부분 우리나라의 금속활자나 우리나라 서적을 모본으로 조성된 것이다. 그러다가 급기야 1615년에는 동활자까지 주조해낸 것이다. 임진왜란이 조선에게는 비극이었으나 일본으로서는 자국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일대 행운이었던 것이다. 저주받을 전쟁이여! **IN**

필자 소개

1981년 부산대학교 졸업. 1992년 성균관대학교 문학박사. 1993년 3월부터 지금까지,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한문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쓴 책으로 『공안파와 조선 후기 한문학』(소명출판, 2007), 『열녀의 탄생』(돌베개, 2009), 『조선시대 책과 지식의 역사』(2013, 천년의상상) 등이 있다.

“

임진왜란으로 인해 2백 년에 걸쳐 쌓아올린 서적 문화가 망실되었다. 우리는 이로 인해 조선 전기까지 전해져 오던 거의 모든 책을 상실하였다. 고려의 『실록』은 물론이고, 그때까지 전해져 왔을 고려 이전의 서적들도 영원히 볼 수가 없게 된 것이었다.

”